

연예인과 함께...즐거움과 나눔이 있는 남도 축제

강진 K-팝 콘서트...“트와이스도 가요” ‘후니올이’와 지리산 걸으며 나눔 실천

전국 군 단위 자치단체 첫 유치
10월 21일 강진만 갈대축제서
샤이니·EXID 등 한류스타 공연



트와이스

을 가을 대한민국 감성여행 1번지 강진에서 한류의 선봉 'K-POP'의 진수를 보여주는 무대가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샤이니와 트와이스, EXID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들이 총출동해 강진만을 밝힐 예정이다.

강진군은 “최근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K-POP 콘서트' 유치 대상으로 강진군이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K-POP 콘서트'는 한국관광공사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지자체단체를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군 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강진군이 첫 사례다.

강진 K-POP 콘서트는 오는 10월 21일 지난해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성공을 거뒀던,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진군은 국비 1억 5000만원을 지원받아 해외홍보 및 관광상품화 등 관광마케팅에 주력하고, 한국관광공사와 콘서트 개최 관련 협의를 통해 콘서트 추진을 위한 개별 계약을 맺게 된다.

강진군은 지난 2월 14일까지 1차 서류심사, 2차 프레젠테이션 심사를 거쳐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심의를 통해 K-POP 콘서트 유치 최종 개최지로 확정되는 성과

를 냈다.

이번 한국관광공사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1억5000만원 2곳, 1억원 4곳, 5000만원 2곳이 선정됐다. 강진군은 이 가운데 가장 많은 1억5000만원을 지원 받는다.

강진군은 이번 평가에서 오는 10월 강진읍을 중심으로 열리는 전남도 주관 남도음식문화큰잔치와 강진군 주관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등을 연계해 콘서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대한민국 대표축제 '강진청자축제' 개최 경험,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를 유치한 체류형 관광도시의 잠재력, 사시사철 노래와 음악이 넘치는 오감통이 있다는 점 등을 내세워 높은 점수를 받은 것

로 알려졌다.

여기에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성숙한 주민의식과 공무원, 기관단체 등 온 군민이 혼연일체가 돼 K-POP 콘서트 유치를 노력한 점도 큰 힘이 됐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강진읍 강진군수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심사에서 강진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가장 많은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 것은 지금까지 쌓아온 국제관광도시로서 강진의 위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준비 단계부터 최고의 콘서트 준비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강진만 생태공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생태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구례 '옥스팜 트레일워커'
5월 20~21일 국내 첫 개최
이제훈·이하니·권율 동참



이제훈

이하니

권율

배우 이제훈과 이하니, 권율이 오는 5월 구례에서 열리는 '옥스팜 트레일워커' 기부행사를 독려하는 친필 메시지를 담은 사진을 깜짝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후니올이'라는 팀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글로벌 기부 프로젝트 구례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참가한다.

이들은 대회에 앞서 현재 온라인에서 자신들의 완주를 응원하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기부펀딩(oxfamtrailwalker.or.kr)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팬들의 관심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사람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램'에 친필 메시지 이벤트를 마련했다.

후니올이팀은 “옥스팜 트레일워커 도전은 우리가 결코 잊지 못할 인생 기부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 세계 가난극복을 위한 옥스팜 트레일워커 도전에 응원해주시는 마음으로, 기부펀딩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참가의 뜻을 전했다.

후니올이팀을 응원하는 이들은 팀페이지에 들어가서 후원에 동참할 수 있으며, 배우들에게 전달되는 응원 메시지 또한 직접 남길 수 있다.

현재까지 36년간 영국, 독일, 호주 등 전 세계 11개국 17개 도시에서 20만명의 참가자가 도전해 2억 달러 이상의 후원금이 모인 세계적인 기부행사로, 한국은 이번 행사로 12번째 옥스팜 트레일워커 개최국이 된다. 또 구례는 18번째 개최도시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는 경쟁하는 대회가 아닌 순수 기부목적의 행사로 대회 참가비(팀당 40만원)와 탐방로 사전 기부펀딩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기부금(팀당 최소 50만원)은 100%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구호 자금으로 전달된다. 100km 코스 외에도 남녀노소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패밀리 프로그램인 10km 코스도 함께 열린다. 옥스팜 트레일워커에 참가 신청을 원하

거나 관련 문의는 트레일워커 대표전화 (070-4711-2802)와 이메일(trailwalker@oxfam.or.kr)로 하면 된다.

서기동 구례군수는 “구례군 토지면에 조성 영조 52년(1776년)에 삼수 부사를 지낸 류이주가 세운 99칸짜리 저택인 운조루에는 뒤주가 하나 있는데, 누구나 뒤주를 열어 쌀을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구례군은 운조루 옆에 박물관을 세워 류이주의 다분히 정신과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기리고 있으며, 이 같은 나눔 정신을 높게 평가한 옥스팜측에서 구례 운조루 일대와 지리산국립공원 등을 돌아볼 수 있는 1박 2일 행사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옥스팜은 1942년 영국 옥스퍼드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식수 문제 해결이나 식량 원조와 같은 인도주의적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례=이진택기자 jit@

‘피의자 박근혜’ 내일 영장심사 출석

영장에 직업은 ‘전직 대통령’
자택서 변호사와 대응책 논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부터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제도 도입 전인 1995년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

환 조사를 받은 지 20여일 뒤 갑작스럽게 서거해 검찰 수사 자체가 중단됐다. 범조계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부담을 무릅쓰고라도 직접 출석해 혐의를 직접 재판부에 해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범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나 검찰 및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불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평가가 많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 이후 삼성동 사저에 집거하며 변호인들과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전날 오후에

는 유영하 변호사가 3시간 넘게 머물렀다 갔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 출석에 대비해 경호·안전 문제 등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경호실 등과 출석 절차도 협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박 전 대통령 측이 출석 사실을 알려오면서 심문 전라 마면에 몰두하고 있다. 법원 안팎에선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31일 새벽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검찰은 구속영장에 피의자 성명인 박근혜, 나이는 65세, 주거지는 삼성동 자택 주소지,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각각 기재했다. 앞서 구속기소된 최순실(61)씨의 직업은 임대업이었다.

담당 검사란에는 지난 21일 박 전 대

통령을 심문한 한홍재 부장검사가 자필로 본인 성명을 직접 기재하고 날인했다.

죄명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2개가 대표적으로 적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밖에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받는다.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관한 설명은 91페이지에 달하는 별지에 별도로 담았다.

인치장소는 서울구치소로 했다. 최씨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국정농단 사건 관련 주요 피고인들이 수감된 곳이다.

영장의 유효기간은 내달 3일까지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조기완공 촉구안 국회 통과

“KTX 무안공항 경유해야”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대한 정부 예산 적기 확보와 무안국제공항 경유 노선의 조속한 확정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완공 촉구 결의안’이 재석의원 199명 중 174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김 의원과 같은 당 윤영일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국회의원 88인이 서명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의 협의를 토대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광주송정~나주~무안공항~목포)을 정부 원안대로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전남도 간 협의가 이뤄진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추진됐지만 기존선을 활용하는 방안이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획재정부의 이견으로 인해 아직까지 최종 노선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김동철 의원은 “호남고속철 2단계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 낙후된 전남 서·남부권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면서 “무안공항 이용자가 전복과 충청권까지 확대되어 국제공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 수 있도록 KTX의 무안공항 경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결의안은 애초 ‘호남고속철도 2단계사업 조기 완공 및 목표-제주 해저터널 건설촉구 결의안’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민주당 소속 제주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는 제외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임전 매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산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24억원(보1억6천, 월1,100만 포함)
- 수원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임점)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1861㎡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 치평동 3층 상가점포 410㎡ 매5억(보5000만, 월220만 포함)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 (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246㎡ 건397㎡ 매10억5천 (보3천2백/월356만원 포함)
- 신가동 4층 상가주택 상업지역 대265㎡ 건609㎡ 매10억5천 (보4천 월500만 포함)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참고용지 3,810㎡ 20억
- 정성동 삼성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참고용지 4,500㎡ 매 2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원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농성동 건물매매

- 농성동 450번지 4층 건물
- 대지165㎡ 건물488㎡
- 보 1700만 / 월 165만(임대중)
- 광고효과 최상
- 매매 4억 7000만원

문의 010-9203-6161